

[KWDI 기획보도자료]

※ 이 자료는 2011년 6월 30일(목)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저작권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 인지 통계·패널센터에 있으니 사용시  
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
## 제 16회 여성주간 기념 기획 보도 자료

# OECD 통계로 보는 한국 여성의 취업과 일·가정양립

2011. 6. 30

작성자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기택 성 인지 통계·패널센터장(02-3156-7178)

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건표 성 인지 통계·패널센터 연구원

기획 및 홍보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·평가팀 황애리(02-3156-7296)



**한국여성정책연구원**  
Korean Women's Development Institute

# 목 차

1. 한국 여성 고용률, 30-34세에서 급격하게 감소 .....	3
2.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, OECD 회원국 중 가장 커 .....	4
3.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꾸준히 감소하는 중 .....	5
4. 한국 35-44세 고학력 여성과 남성의 소득격차, OECD 중 가장 작아 .....	6
5. 30대 여성 고용률, 전체 여성 고용률 증가에 가장 큰 영향 .....	7
6. ‘09년 30대 남녀 고용률 격차를 해소하면, OECD 여성 고용률 10계단 상승 .....	8
7. 한국 유아교육의 정부재원 비율,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쳐 .....	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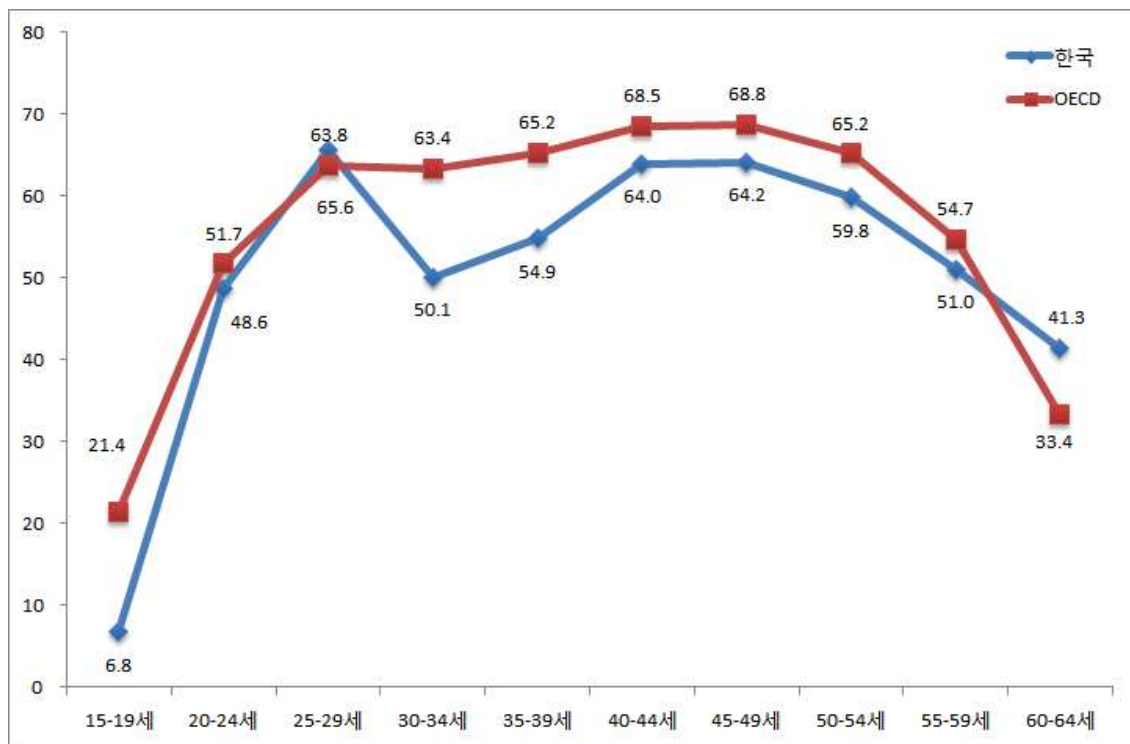
## 1. 한국 여성 고용률, 30-34세에서 급격하게 감소

○ 한국의 30-34세 여성 고용률, OECD 평균보다 13.3%p 낮아

-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15-19세부터 25-29세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.
- 2009년 현재 한국의 25-29세 여성 고용률은 65.6%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고, 같은 연령대의 OECD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남.
- 반면 30-34세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50.1%로 급격하게 감소한 후 45-49세 64.2%로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는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이 나타남.
- OECD 회원국 여성 고용률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, 한국과 유사하게 25-29세까지는 고용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또한, 30-34세 OECD 회원국 여성은 이전 연령층에 비해 약간의 고용률 감소가 있지만 한국과 같이 급격한 감소는 나타나지 않음.

<그림 1> 2009년 한국 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

(단위 : %)



자료 : OECD Stat(<http://stats.oecd.org>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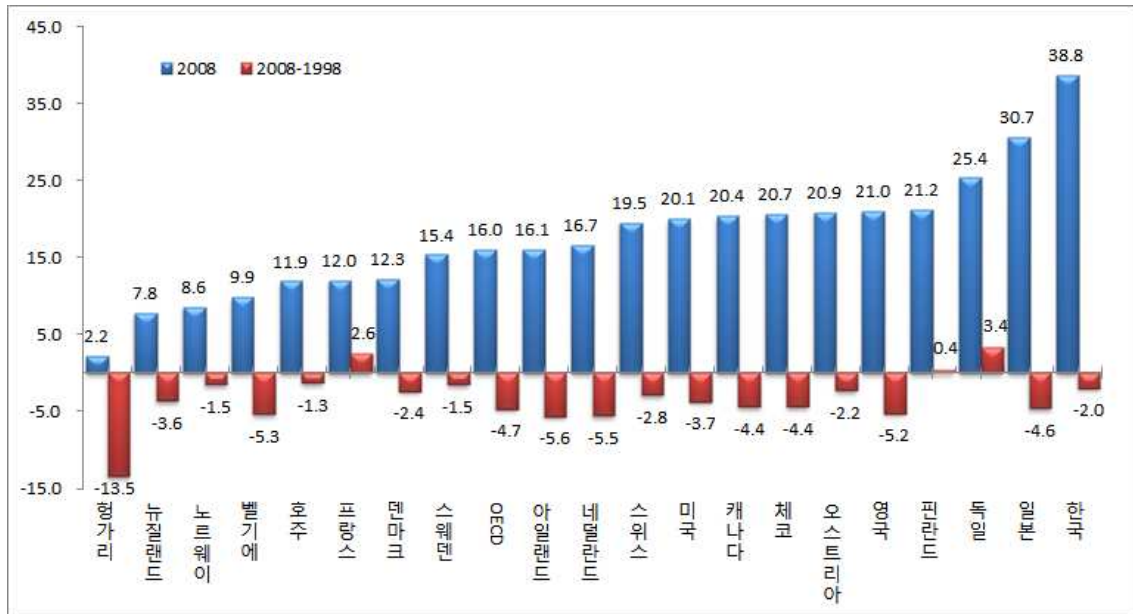
## 2.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, OECD 회원국 중 가장 커

○ 2008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8.8%로 OECD 평균의 두 배 넘어

- 2008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8.8%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게 나타남.
- OECD 회원국의 평균 성별 임금격차는 16.0%로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가 넘는 격차가 있음.
- 성별 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일본 30.7%, 독일 25.4%, 핀란드 21.2% 등으로 나타났다.
- 성별 임금격차가 작은 국가는 벨기에 9.9%, 노르웨이 8.6%, 뉴질랜드 7.8% 등이며, 헝가리의 성별 임금격차는 2.2%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.
- 또한 헝가리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지난 10년간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
<그림 2> 2008년 OECD 회원국의 성별 임금격차 및 1998년 대비 증감 현황

(단위 : %, %p)



자료 : OECD Stat(<http://stats.oecd.org>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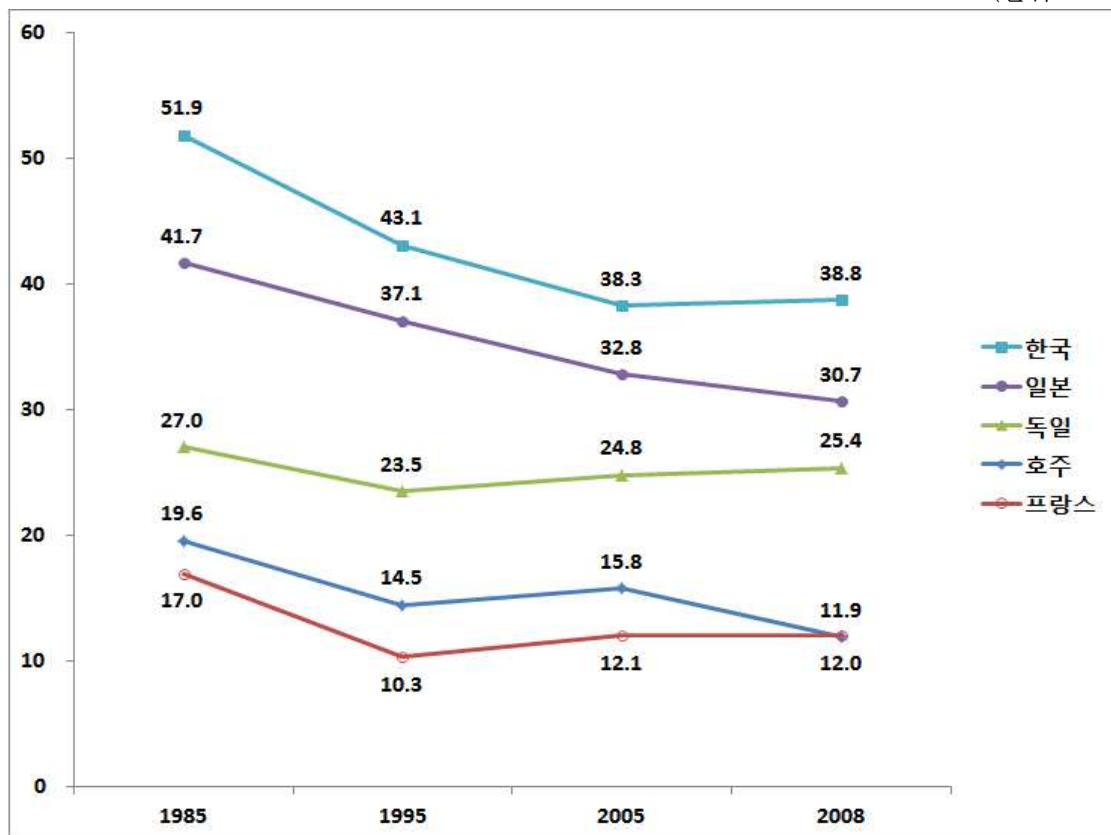
### 3.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꾸준히 감소하는 중

○ 2008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1985년에 비해 13.1%p 감소

-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1985년 51.9%에서 2008년 38.8%로 감소함.
- 일본 11.0%p, 호주 7.7%p, 프랑스 5.0%p, 독일 1.6%p 등 주요 국가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완화되었으며, 특히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완화 폭이 크게 나타남.
- 향후에도 관련법제도 및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.

<그림 3> 주요 국가의 성별 임금격차 변화 추이: 1985-2008

(단위 : %)



자료 : OECD Earnings database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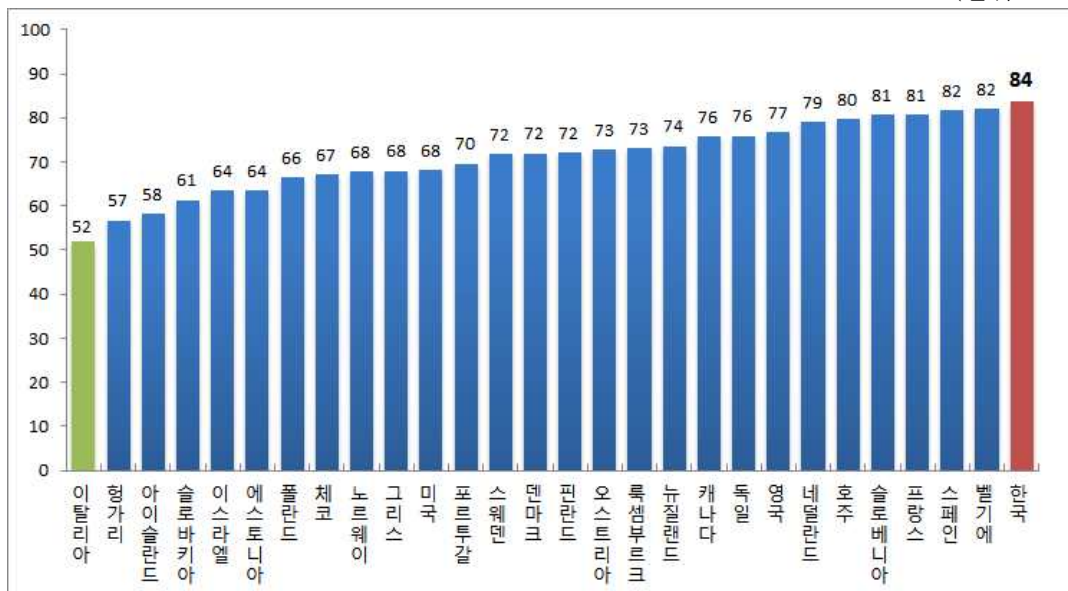
#### 4. 한국 35-44세 고학력 여성과 남성의 소득격차, OECD 중 가장 작아

○ 한국의 35-44세 고학력 여성의 연평균 소득은 동일연령, 학력 남성 소득의 84%

- 2007년 한국의 35-44세 여성 전체의 연평균 소득은 동일 연령대 남성 소득의 59%로 나타남.
-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35-44세 남녀의 연평균 소득격차가 가장 낮은 국가는 슬로베니아(92%)로 나타남.
- 반면, 35-44세 한국 여성 가운데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고학력자의 연평균 소득은 남성 소득의 84%로 가장 높게 나타남.
- 한국은 전체 교육수준에서 남성과의 연평균 소득 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35-44세 고학력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경우 남성과의 연평균 소득차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.

<그림 4> OECD 국가 35-44세 고학력 여성의 남성 소득 대비 연평균 소득 비율

(단위 : %)



주. 각 국가의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, 한국은 2007년 기준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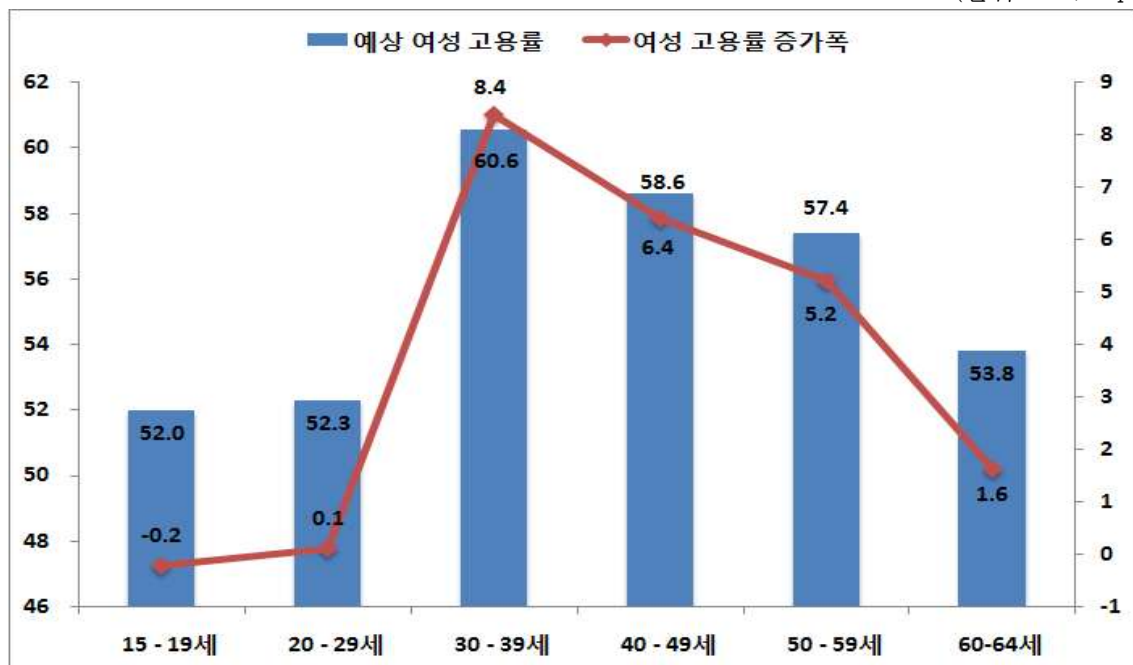
자료: OECD.2010. Education at a Glance, 2010 ([www.oecd.org/edu/eag2010](http://www.oecd.org/edu/eag2010))

## 5. 30대 여성 고용률 증가가 전체 여성 고용률 증가의 핵심

○ 2009년 한국 30-39세 여성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과 같아지면, 전체 여성 고용률은 8.4%p 증가 예상

- 2009년을 기준으로 연령대별로 여성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과 동일해질 경우의 전체 여성 고용률 변화에 대한 모의실험(Simulation)을 실시함.
- 그 결과, 30-39세 여성의 고용률을 남성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전체 여성 고용률이 8.4%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.  
※2009년 현재 30-39세 남녀 고용률: 여성 52.7%, 남성 89.1%(KOSIS)
- 30대 여성이 전체 연령대 가운데 고용률 성별 격차 해소에 따른 전체 여성 고용률 개선 효과가 가장 큰 집단으로 나타남.
- 한편, 40-49세 여성 고용률을 남성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6.4%p의 전체 여성 고용률 증가가 나타났고, 50-59세 여성 고용률을 같은 연령대의 남성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전체 여성 고용률이 1.6%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.

<그림 5> 2009년 연령대별 고용률 성별 격차 해소에 따른 전체 여성 고용률 변화 모의실험 결과  
(단위 : %, 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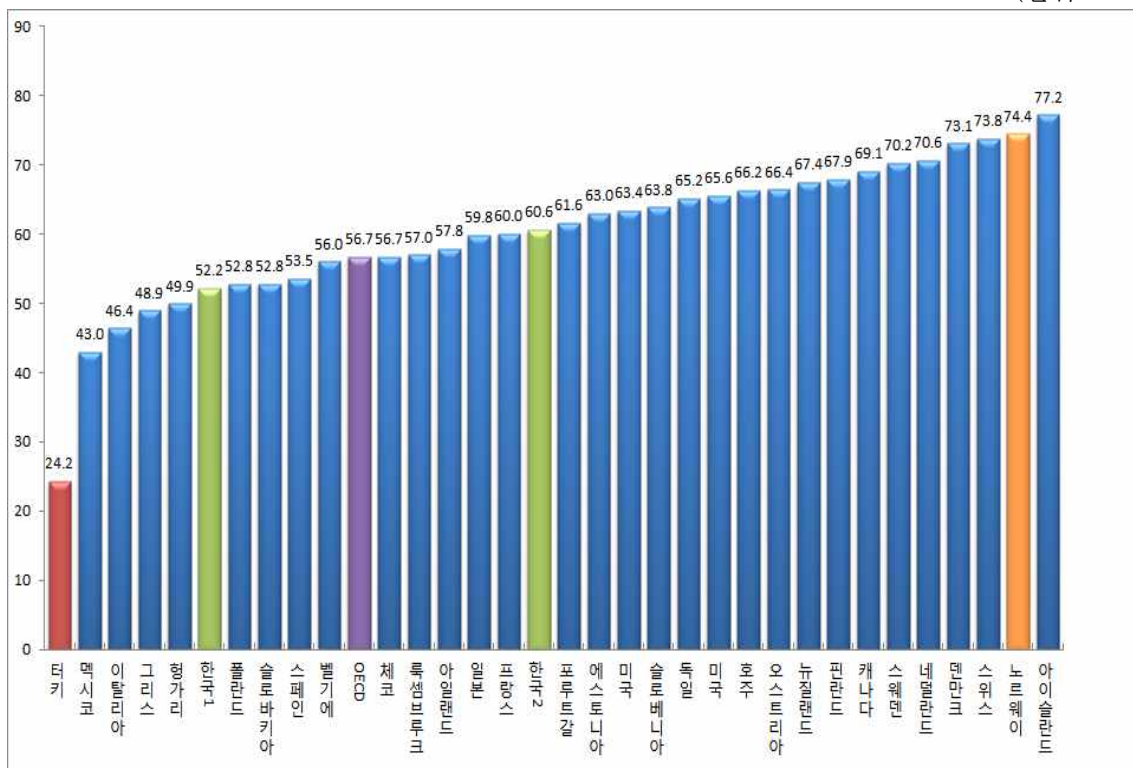


## 6. 2009년 30대 남녀 고용률 격차를 해소하면, OECD 여성 고용률 10계단 상승

○ 2009년 30-39세 남녀 고용률 격차가 해소되면, 전체 여성 고용률은 52.2%에서 60.6%로 상승 예상

- 2009년 한국의 15-64세 여성 고용률은 52.2%로 OECD 회원국 평균 56.7%보다 낮게 나타남.
- 반면 2009년 한국 30-39세 여성의 고용률이 동일 연령대의 남성과 같아지면 전체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60.6%로 나타나고, 한국의 여성 고용률 순위도 10계단 상승하게 됨.

<그림 6> 2009년 30대 여성 고용률 개선에 따른 한국 여성 고용률 순위 변화 추정  
(단위 : %)



주. 한국1은 2009년 한국의 15-64세 여성 고용률, 한국2는 30-39세 여성 고용률이 남성 수준으로 상승한 경우의 15-64세 여성 고용률을 의미함.



## 7. 한국 유아교육의 정부재원 비율,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쳐

○ 한국 유아교육의 정부재원 비율은 64.7%로 OECD 평균보다 19.1%p 낮아

- 유아교육의 정부재원 비율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음.

※유아교육은 3세 이상 취학전 아동 대상의 교육을 의미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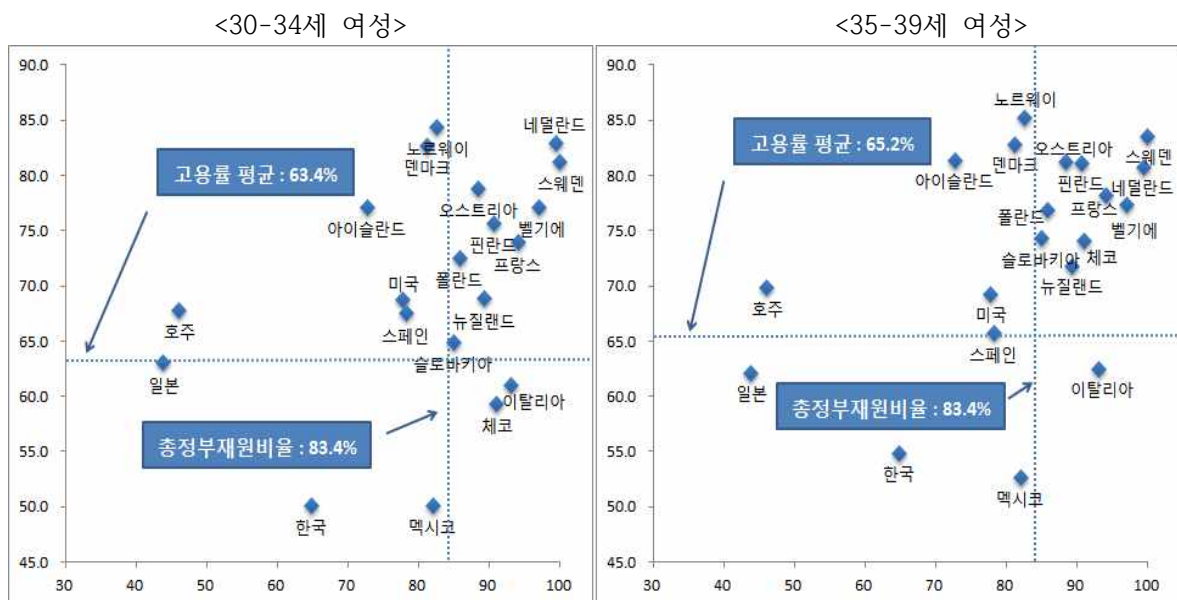
- 유아교육의 정부재원 비율과 30-39세 여성 고용률이 OECD 평균 이상인 국가들은 네덜란드, 스웨덴, 벨기에, 오스트리아, 핀란드, 벨기에 등으로 나타남.

- 유아교육의 정부재원 비율과 30-39세 여성 고용률이 OECD 평균 이하인 국가들은 일본, 한국, 멕시코 등으로 나타남.

- 전반적으로 30대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유아교육에 투입되는 정부재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.

<그림 7> OECD 주요 국가의 30대 여성 고용률과 유아교육의 정부재원 비율 분포

(단위 : %)



자료: OECD.2010.Education at a Glance2010과 OECD Stat를 바탕으로 구성.